

기념시

산동초등학교 개교 백주년 기념

사랑과 연대의 정신으로 온 누리에 빛나리

박종철(시인)

우리 모두가 행복했던 시절이 여기 있다
내일의 꿈을 품은 가슴으로 젊음의 길을 열었던
그 시절이 여기 있다
산천이 백년을 변하면서 흘러와도 여전히 새로운 꽃길로
아버지의 정신, 어머니의 마음이 서린 고향은
여기 온 누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랑과 연대의 얼굴로 면면히 이어온
자랑스러운 모교, 우리 산동초등학교
이곳을 거쳐 간 소중한 인연의 혈맥들이
방방곡곡에 푸르른 산맥으로 뻗어나가
산동의 산봉우리, 산동의 꽃봉오리로 맺혀있구나
추억이 아름다운 칠천여명의 동창생들이여!

천황, 대성, 고남의 산신이 호위하는
신령한 산자락마다 아담하게 둉우리 튼 마을들
순박한 사람들이 착한 행실로 이룬 공동체이거니
근면 성실을 신념으로 평화롭게 살아온 마을에서 태어난
사랑스런 아들딸들이 슬기롭게 자라나는 터전이
곧 우리들 배움의 전당인 산동초등학교일세!

추억의 교정
아름드리 벚나무 사라진 자리에
진달래 흥단풍이 꽃동산의 혼불로 새롭게 타오르고

가을 운동회 날, 온 고을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지는 곳
광복절 면민의 날,
남녀노소 모두 모여 경축하는 함성이 울려 퍼지는 곳

백년의 세월

강산이 열 번을 변했어도 산동은 변함없는 새로움일 뿐
사랑과 연대의 정신 청청하게 가온누리의 푸르름일 뿐
우리들의 추억어린 희망의 터전을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가꾸어서
진선미의 꿈과 소망을 길이 꽂피울
우리 산동초등학교

산동인 모두 백년의 전통을 경하하며
오늘의 주인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 다시 떠오를 해와 달을 믿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배움의 전당, 산동의 영광을 축원하고
우리 모두 함께 자랑하리라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리라.

< 약력 >



박종철